

삼정 KPMG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Channel

METaverse

메타버스를
열어 갈
디지털 혁신 파트너

2021
NOVEMBER

•
Vol.226

cover story

가상과 현실, 그 너머에! 메타버스 시대를 함께 열어 갈 디지털 혁신 파트너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Metaverse)*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메타버스는 5G 상용화 등의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페이스북'은 '메타'로 사명을 바꾸는 등
기업들 역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위해
메타버스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삼정KPMG는 기업들과 메타버스를 함께 열어 갈
디지털 혁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현실세계의 질서와 공존이 가능한 메타버스가
기업의 지속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 메타버스: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가리킴.





QR코드를 통해 삼성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건강한 성장

- 04 Emerging Trends**
현실을 초월한 세계,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
- 06 Team Story**
HR 혁신 이끌며 기업 가치 높이는
인사조직(HR) 컨설팅팀
- 08 Client+**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에이치피오
- 10 Market Reader**
국내 여행으로 발길 돌리는 유턴족,
호텔·리조트 산업 돌파구 뭘까?
- 12 Expert's Advice**
필라1·2의 주요 내용과 준비 방안은?
- 13 맛있는 경제**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행복한 일터

- 15 Culture+**
생존, 정의 그리고 야망 사이
- 16 삼성인터뷰**
신임 이사, 한 단계 JUMP UP!
그땐 그랬지! 법인과 함께 성장해온 우리들
- 18 삼성별그램**
가을 나들이 & 캠핑 어디로 갈까?
- 20 Smart Play**
KPMG 비올리스트!
가을, 클래식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
- 22 이동규의 두줄칼럼**
피플 퍼스트(People 1st)
- 24 心 Care**
스트레스 상황의 응급처방
자기 돌봄 기법
- 26 Samjong News**
'제4회 회계의 날',
회계 업계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 8명 표창 수상 外



발행처 삼성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드림인쇄(02-464-616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home.kpmg/kr/ko/home.html

현실을 초월한 세계,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면서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도 '오징어 게임'의 흥행 호재를 누리고 있다. 월간활성사용자(MAU)가 1.5억 명에 달하는 로블록스에서 '오징어 게임(Squid Game)'을 검색하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같이 영화에서 나온 게임을 가상에 그대로 재현해 놓은 수백 개의 월드가 검색되기도 한다. 가장 인기가 높은 방의 누적 방문자 수는 4,000만 명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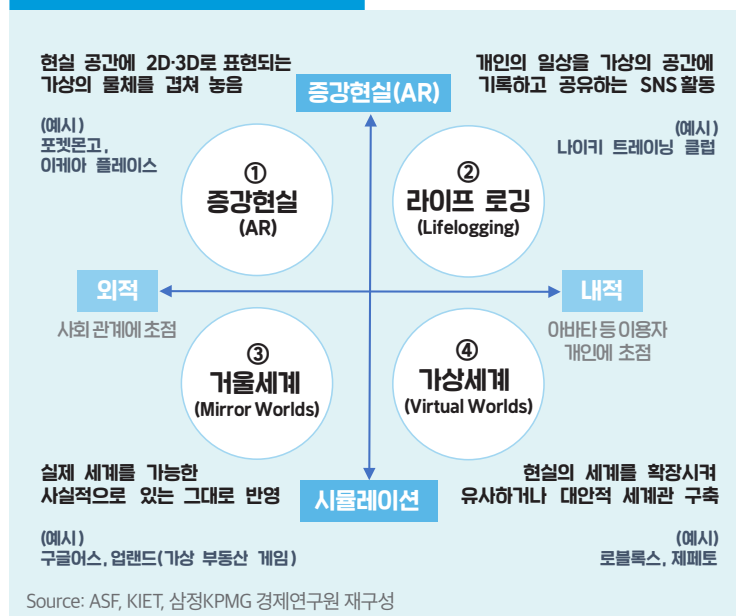
이번 호에서는 오늘날 부상하는 메타버스의 실체가 무엇인지, 기업들은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코로나19로 앞당겨진 메타버스 시대

코로나19로 원격근무, 원격수업 등 비대면 문화는 우리의 일상이 됐다. 온라인이 주는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오프라인에서 얼굴을 맞대고 다시 소통하기를 희망한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더라도 실제로 만나 대화했을 때 주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메타버스는 가상 세계에서 활동할 한 층 더 현실적으로 만들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초월이라는 뜻의 메타(Meta)와 세계라는 뜻의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인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융합되어 상호작용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비영리 기술 단체 ASF에서는 메타버스를 크게 증강현실(AR), 라이프 로깅(Lifelogging), 거울세계(Mirror Worlds), 가상세계(Virtual Worlds)로 구분하는 가운데, 각 유형의 경계는 점차 흐려지고 있다.

메타버스의 4가지 유형



메타버스, 넥스트 빅싱 될까?

메타버스가 올해 들어 급부상한 키워드인 만큼 이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기업이 만들어 낸 마케팅 용어라는 비판도 있으며, 반짝하다 거품이 꺼질 것이라는 우려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오늘날 메타버스를 둘러싼 업계의 변화를 들여다보면, 메타버스는 PC와 인터넷, 스마트폰을 잇는 넥스트 빅싱(Next Big Thing)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시장의 기회를 전광석화(電光石火)처럼 찾아내는 기업의 움직임에서 엿볼 수 있다. 오늘날 미국의 로블록스, 네이버제트의 제페토 등 메타버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는 MZ세대이며, 기업은 미래의 핵심 소비층이 될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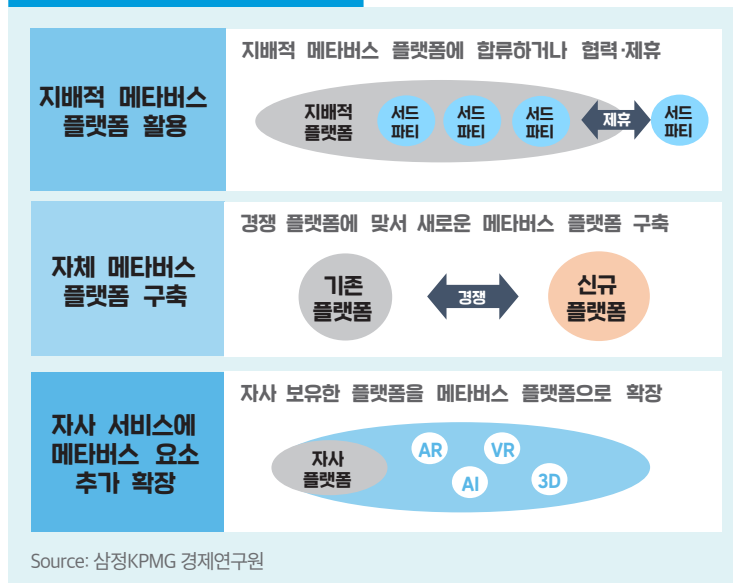
을 공략하기 위해 메타버스에 적극 투자 중이다. 오쿨러스(Oculus)를 2014년 인수한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사업을 키우기 위해 유럽에서 1만 명의 메타버스 전문가를 채용하고, 17년간 사용한 페이스북 사명도 '메타(Meta)'로 변경했다. 게임 업계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제조, 건설 업계에서도 메타버스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처럼 메타버스 관련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선점하고자 하는 기업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메타버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 CPND(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측면에서의 발전 또한 꼽을 수 있다. 공고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내에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순환되어야 한다. 오늘날 로블록스가 주목받는 이유도 플랫폼 자체 때문만이 아니라, 로블록스 플랫폼 안의 개발자들이 만들어 낸 5,000만 개의 월드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VR·AR(가상·증강현실)을 위한 HMD(Head-Mounted Display), 5G, 인공지능, 클라우드, 반도체 칩까지 메타버스 안에서의 경험을 한층 더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한 기술의 발전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메타버스 시대,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메타버스라고 해서 대단히 새롭거나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메타버스에 발을 딛는 기업은 우선 메타버스에 대한 기업 고유의 관점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 기업에게 메타버스는 현실의 자아를 반영한 아바타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기업에게는 디지털 트윈(Digital

메타버스 플랫폼 전략



Twin)과 같이 현실과 가상이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 기업의 자사의 사업 모델에 적합한 메타버스 형태가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이 동반되어야 한다.

메타버스가 기존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제공되어 온 서비스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고객이 기업의 상품을 접하는 순간부터 구매하기까지 전체 여정을 고객 경험(CX)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 시·공간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를 활용할 경우 고객의 어떤 페인 포인트(Pain Point)를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이후 기업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자체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해 나갈지, 혹은 지배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에 합류해 사업을 확장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메타버스가 앞으로 업계의 경쟁 구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시장 질서를 재편할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오늘날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은 분명 기존 사업자에게 영향을 줄 것이고, 이에 대비하지 못한 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국내 기업이 선제적으로 메타버스 시대에 대비해, 현실을 초월한 세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HR 혁신 이끌며 기업 가치 높이는 인사조직(HR) 컨설팅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과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인해 변화의 물결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중 기업의 가장 큰 변화의 바람 중 하나가 바로 인사(HR) 분야이다.

삼성KPMG는 기업들의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HR 전략을 위해
인사조직(HR) 컨설팅팀을 운영하며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번 호에서는 인사조직 컨설팅팀을 만나본다.

MZ세대 위한 평가·보상·육성제도 변화 시급해

4차 산업혁명 환경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인재 확보 및 육성, 유지하는 것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이다. 이를 위해 과거 조직몰입과 로열티(loyalty)를 우선시하여 바라보던 인재상과 인재에게 요구하는 역량에 대한 관점과 관리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이들 대다수가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가진 MZ세대들이다. MZ세대의 추구 가치를 보다 잘 수용할 수 있는 평가제도, 보상제도, 육성제도의 변화가 시급하다.

인사의 운영에 있어서도 인사부서와 리더가 통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플랫폼, 자동화 기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등의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권한위임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하고, 궁극적으로 자기 주도형 성장을 추구하고, 이에 능한 인재가 많아져야 혁신과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

베테랑 인사조직 전문가 그룹, 창의적, 혁신적 인사전략 자문 제시

삼성KPMG 인사조직 컨설팅팀은 혁신적이고, 사업가적 관점에서 개인 성장, 조직성장, 성과에 몰입하는 리더들이 조직을 운영하도록 도와주는 전문가 그룹이다. 인사조직 분야에서 20여 년 컨설팅 경험을 가진 3명의 파트너를 중심으로, 10~15년간 수많은 다양한 업종과 주제를 경험한 최고의 전문 컨설턴트로 구성됐다.

또한, 다양한 전통 및 혁신 산업, 국내외 컨설팅 경험들을 두루 갖춘 베테랑 전문가들이 다양성에 기반한 창의적인 조언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혁신적이고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며, 시장의 표준을 형성하고 리드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인사전략과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수용하도록 유도하며, 지속적인 컨설팅 니즈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삼성KPMG 인사조직 컨설팅팀은 법인 내 다양한 서비스 라인과의 협업으로 기업들의 인사 이슈를 통합적이고 끊임 없이 해결함으로써, 더욱 확장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국내 최고, 최대의 인사조직 전문가로!

삼성KPMG 인사조직 컨설팅팀은 현재 약 15명의 전문 인력을 2021년 연말까지 30명 수준으로 확대해 나날이 증가하는 시장의 니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2022년부터는 인사전략과 제도 컨설팅이라는 핵심 서비스를 기반으로 사업전략, 디지털전환,



인수합병 등 법인 내 다양한 서비스와 융합화된 솔루션 개발 및 자문 제공을 본격적으로 시도하며 성장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최고, 최대의 인사조직 전문가 집단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성장하여 질과 양 모든 측면에서, 시장 리더가 되고자 한다. 나아가,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사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발하여, 컨설팅 자문 외 상품화된 서비스 영역을 개척할 계획이다.

· 인사조직 컨설팅팀 주요 서비스 ·



- 기업의 사업전략을 뒷받침하는 인사전략 설정
- 직무/직급체계, 평가체계, 보상체계, 육성체계 등 인사 전반의 핵심요소 설계 및 요소 간의 원활한 연계와 효과적인 운영전략 서비스 제공
- 역량체계 재구축, 인사 기능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시대 리더십 육성, MZ세대 성장 위한 인사제도 개선, ESG 위한 인사전략 개선

INTRODUCE

인사조직 컨설팅팀은?

박형철 부대표(팀 리더)
hyunchulpark@kr.kpmg.com



“대부분의 CEO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 직후, 이를 누구에게 맡길지 고민합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실행 주체인 인재가 몰입하지 못한다면 탁상공론일 뿐입니다. 인사조직 컨설팅팀은 인재 개개인이 성과와 성장에 몰입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고객의 사업목표 달성을 이루게 하는 핵심전략과 방법을 제시하는 비즈니스 컨설팅입니다.”

정지영 전무
jyoungchung@kr.kpmg.com



“산업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회사별로 주력 업종의 변화가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직과 인력 운영 방식 역시 기존의 방식으로는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변화된 일하는 방식, 주력 인력으로 부각된 MZ세대들 등의 이슈는 단편적인 제도 설계로는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문화, 조직, 제도, 디지털이 통합된 솔루션 제공이 HR Value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팀이 기업들의 통합적 Talent Solution을 제공할 것입니다.”

윤훈상 상무
hoonsangyoon@kr.kpmg.com



“고객 비즈니스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사람 챙김’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한 영역을 채워주는 곳이 KPMG 인사조직 컨설팅팀입니다. 그동안 비워져 있던 KPMG 컨설팅 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고, 우리의 완결성을 높여서 ‘Vision 2025’ 달성에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트렌드를 제시하다!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에이치피오

지난 2012년 설립된 에이치피오는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덴프스(Denps)’를 기반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에서 건강기능식품 개발·제조·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이다. 대표 제품인 유산균(덴마크유산균이야기)과 비타민(트루바이타민) 뿐만 아니라 콜라겐, 오메가3 등 신규 제품의 매출액도 2020년 크게 증가했으며, 지난해부터 ‘Denps’ 브랜드를 통한 신규 제품 출시와 함께 온라인·모바일 판매채널도 강화하고 있다. 2021년 5월 14일에는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Denps



1



2



3

건강한 삶, 사회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에이치피오는 북유럽의 엄격한 식품 안전 철학을 담은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Denps’를 기반으로, 아시아와 유럽 시장에서 건강기능식품 개발, 제조, 브랜드마케팅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북유럽 지역이 오랜 역사를 통해 쌓아온 사회적 신뢰와 우수한 원료 기반, 건강한 삶에 대한 가치관은 ‘Denps’ 브랜드가 지향하는 바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브랜드 철학을 실질화하기 위해 에이치피오는 2016년 덴마크 자회사 (Denps Aps)를 설립해 유럽 현지에서 주요 제품의 원료와 생산체계를 구축했고, 현재 글로벌 사업의 중심축으로 활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Denps’는 사회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Sustainable) 성장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에이치피오는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 원칙을 도입했다.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친환경 포장재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해 일부 제품에 적용하고 있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에이치피오는 ‘Denps’의 철학에 부합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산업에서 Top-tier 지위 확보해

에이치피오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최상위 시장을 중심으로 주력 제품을 구성하고 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에서 최상위 시장은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으로 전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에이치피오 매출액의 73.2%는 최상위 시장(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홍삼을 제외한 모든 최상위 시장에서 Top-tier 지위를 확

국내 여행으로 발길 돌리는 유턴족, 호텔·리조트 산업 돌파구 될까?

코로나19로 내국 관광객은 여행을 자제하게 되고, 하늘길이 막혀 외국 관광객의 수요마저 사라졌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호텔·리조트 산업에서 최근 국내 여행으로 발길을 돌리는 유턴족이 주목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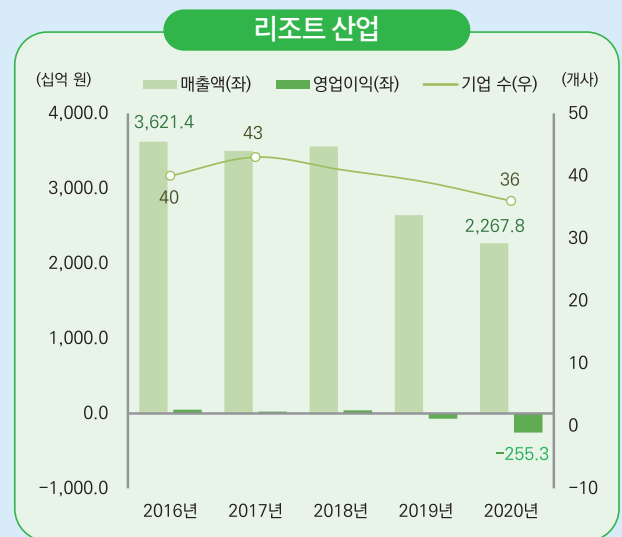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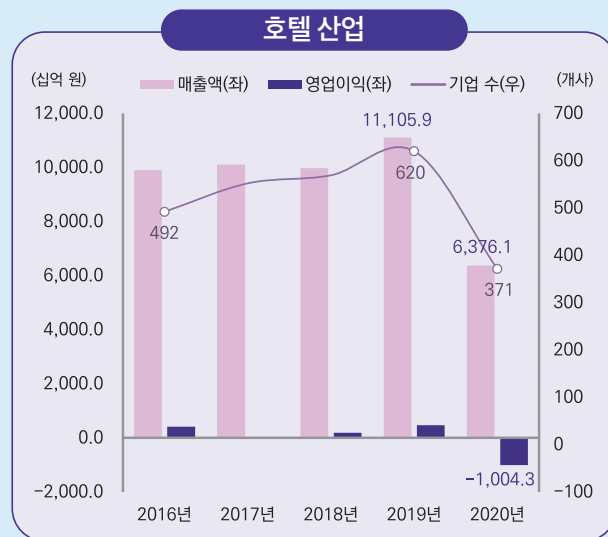
유턴족에 주목하는 호텔·리조트 산업

코로나19가 국내 호텔·리조트 산업에 미친 영향은 기존 업계의 예상을 넘어서고 있다.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던 국내 주요 호텔·리조트의 매출은 2020년을 기점으로 급감했으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국내 호텔업계의 총매출액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10조 원 규모로 안정적인 실

적을 나타냈으나, 2020년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수요 감소로 6조 3,761억 원까지 급감했다. 영업이익 또한 1조 원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내 리조트 업계의 총매출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3조 원 규모에서 2020년 2조 2,678억 원까지 감소하며 2,553억 원의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최근 워드 코로나의 분위기가 조성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호텔·리조트 산업의 불황은 언제까지 지속될지 가능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불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먼저 해외여행을 대신해 국내 호텔·리조트로 발길을 돌리는 여행객, '유턴족'의 증가에 주목했다.

국내 호텔·리조트 산업 실적 추이



Source: Kisline,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1: '호텔업(155101)', '휴양 콘도 운영업(155103)'으로 Kisline에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각 사 매출액·영업이익은 호텔·리조트 사업 분야의 실적이 아닌 전체 실적임

Note2: 2020년을 제외하고는 익년도 말 기준 합산이며, 2020년은 익년도 중반 기준 합산

호텔·리조트 산업, 유턴족 유형별로 집중공략!

유턴족의 유형은 크게 언택트족·웰빙족·룸콕족·럭셔리홈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최근 국내 호텔·리조트에서는 사람과의 대면 및 접촉을 최소화하고 싶어하는 언택트족들을 위해 비대면 방식의 로봇 배달이나 디지털 키, 음성인식 객실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개인 면역력 강화를 중요히 여기고 개방된 공간에서 건강을 챙기고 싶어하는 웰빙족을 위해서 야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요가, 명상 등의 프로그램을 포함한 웰니스 패키지나 웰빙 식사 등을 제공한다.

방에만 있길 원하는 룸콕족을 위해서는 DIY키트, 간식 세트 등을 객실에 일괄 제공하며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게임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재택근무가 확산되자 집이 아닌 호텔에서 근무하려고 하는 재택근무자들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도 개발했다. 또한 호텔이나 리조트를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서비스를 받아보기를 희망하는 럭셔리홈족을 위해서 커피, 꽃, 와인 등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집까지 배송해주는 구독 서비스를 개시했다. 호텔·리조트 내 고급 레스토랑 식사를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가정간편식(HMR) 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새로운 전략으로 수익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

그 외에도 기존의 충성고객을 락인(Lock-in)하기 위해 멤버십 프로모션을 리뉴얼하는 등 로열티 마케팅도 강화하고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진행하는 '공홈족'을 타깃으로 보다 더 좋은 혜택과 서비스를 포함하는 홈페이지 전용 상품을 개발하기도 했다. 또한 모바일 영상 시청

에 익숙한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라이브커머스 시장에도 진출하는 등 세대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 전략 변화도 이뤄지고 있다.

불황 속 새로운 트렌드 변화와 기회를 잡아라!

코로나19로 호텔·리조트 산업의 불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불황 속에서도 새로운 트렌드 변화와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 수많은 환경적 위기를 겪으며 생물들 가운데 살아남은 것은 강하고 똑똑한 종이 아닌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한 종이였다는 찰스 다윈의 말처럼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다. 호텔·리조트 기업들도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트렌드와 기회를 찾아 빠르게 변화해야 할 시기다.

CONTACT US

부동산자문팀 서광덕 상무

Tel. 02-2112-0170

E-mail. kwangdukseo@kr.kpmg.com

경제연구원 전혜린 선임연구원

Tel. 02-2112-7976

E-mail. haerinjeon@kr.kpmg.com

해외여행 대신 국내 호텔·리조트를 이용하는 '유턴족'의 유형

언택트족

- 감염이 우려되어 숙박 시 사람과의 대면은 최소화하고 싶은 여행객
- 완전 비대면 서비스나 최소한의 접촉 희망



로봇 배달, 키오스크 체크인·체크아웃, 디지털 키 등 비대면 서비스 도입

웰빙족

- 제한된 환경에서도 면역력 강화를 위해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싶은 여행객
- 비교적 탁 트인 공간 내 신체적·정신적 활동이나 웰빙 식사를 희망



넓고 트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포함한 웰니스 패키지나 웰빙 식사 서비스를 제공

룸콕족

- 집콕 생활에 지쳐 집이 아닌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 여행객
- 프라이빗하고 위생적인 객실 내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희망



OTT 서비스, DIY 키트, 간식 서비스 등 즐길 거리를 객실로 일괄 제공.
재택근무자를 위한 출퇴근 패키지도 개발

럭셔리홈족

- 외출 자체를 지양하고 집에만 머물면서 호텔·리조트 서비스는 누리고 싶은 여행객
- 방문 시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집에서 제공받기를 희망



커피·꽃·와인 등 자체 PB 상품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개시.
호텔·리조트 레스토랑 HMR 상품 다양화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필라1·2의 주요 내용과 준비 방안은?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2.0 도입과 함께 글로벌 국제조세 환경은 더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러한 큰 변화에 앞서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해외법인 관리 방안을 사전에 준비하여 잠재적인 과세위험 최소화를 고민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국제 조세 전문가에게 BEPS 2.0 도입 관련하여 주요 내용과 준비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Q1 BEPS 2.0 필라1·2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난 10월 8일 OECD/G20의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제13차 총회를 개최해 4년여간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합의에 이른 BEPS 2.0 (디지털세) 필라1·2의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100여 년간 지속되어 온 기존의 글로벌 조세체계의 큰 틀이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라1은 연결 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 원)를 초과하면서 동시에 이익률이 10%를 초과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 적용됩니다. 핵심 내용은 기업의 글로벌 초과이익 중 1/4은 시장이 기여하여 창출된 것으로 여겨,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시장소재지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필라1의 적용대상 업종 및 기준 등에 대해 여러 논쟁이 있었으나, 업종에 상관없이 글로벌 100대 기업 수준의 기업들에 한정해 적용하자는 합의에 따라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 & 이익률 10% 초과라는 기준이 최종 합의되었습니다. 이에 국내 기업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도가 필라1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라2는 연결 매출액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며, 국가별 기준으로 실효세율이 최저한 세율 15%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세액만큼을 모회사가 자국의 과세관청에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A기업의 아일랜드 소재 자회사가 현재의 실효세율(법인세액/ 과세대상소득)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면, A기업은 자신의 법인세 납부액에 추가하여 필라2 적용에 따라 5%의 세액을 한국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Q2 2023년부터 국내 디지털세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필라1과는 달리 필라2의 경우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견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적인 점검 및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해외 생산법인이 대규모의 공장, 설비 등의 증설, 투자를 계획할 경우, 이와 관련해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지자체와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협상 시 필라2의 효과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면서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필라2 규정에 따르면, 투자 인센티브로 인한 법인세액 등의 감면에 대해 별도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인센티브에 따른 세액감면으로 현지에서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본사가 한국 국세청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인센티브의 효과가 상당 부분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 정부, 지자체와의 인센티브 협상 시 간접세(부가가치세, 관세 등) 혜택, 취득세 등 거래세, 부동산 보유세 등 법인세 감면 외의 인센티브 제공을 유도해야 합니다.

한편, 삼정KPMG Tax6본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BEPS 2.0 도입 전후의 세부담 효과를 정확하게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진단 솔루션 'KPMG BEPS 2.0 진단모델'을 자체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에게 가장 명확한 'BEPS 2.0' 솔루션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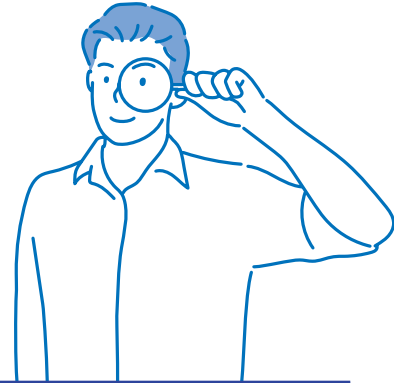


Tax6본부 윤용준 상무

Tel. 02-2112-2077

E-mail. yongjunyoon@kr.kpmg.com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재생에너지가 대중화됨에 따라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했다. 또한, 코로나19로 변화된 새로운 유통방식도 눈에 띈다. 이번 호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용어들에 대해 배워보고, 핀테크 성장에 대한 통계 자료도 살펴본다.

그리드 패리티 (Grid Parity)

재생에너지가 대중화되면서 'RE100', 'ESS', '그리드 패리티' 등 낯선 용어들이 눈에 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 캠페인을 의미하며, 'ESS'는 남은 전력을 따로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그리드 패리티'란 신재생에너지와 전통에너지의 발전단가가 동일해지는 시점을 가리킨다. 선제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선 주요국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많이 하락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편, 에너지 조사업체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한국은 그리드 패리티를 2027년에 달성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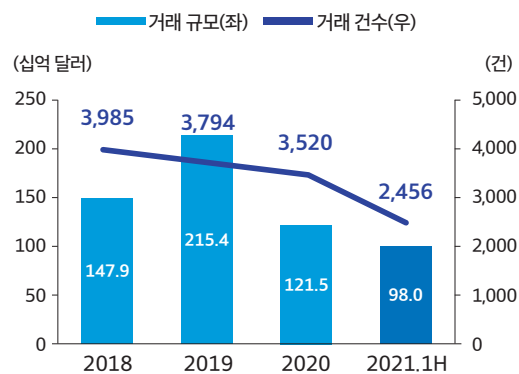
D2C (Direct to Customer)

코로나19로 우리의 생활 방식이 변화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온라인 쇼핑의 급격한 성장이었다. 온라인 유통 성장 속에서 최근 급부상하며 주목받는 온라인 유통방식은 바로 D2C이다. 이는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의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고 SNS가 활성화되면서 유통의 과정에서 유통업자를 거치지 않고 성공적인 판매와 소비가 이뤄지는 환경이 조성됐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이마케터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해 D2C 관련 매출은 178억 달러로 한화 20조 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보다 24.3% 늘어난 규모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D2C는 주목받는 유통 트렌드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화장품, 의류 등 소비재를 넘어 자동차는 물론 이커머스 기업 시장까지 확산하고 있다.

2021 상반기 글로벌 핀테크 투자, 980억 달러로 반등세 지속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축된 글로벌 핀테크 투자가 2021년 상반기 980억 달러를 기록하며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핀테크 투자는 시중 대기 자금, 코로나19 관련 디지털 가속화 등에 힘입어 확대된 가운데,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도 집중됐다. 국내 핀테크 투자 역시 디지털 전환 수요와 데이터 등 신규 사업 진출 기대감 등으로 2021년 상반기 투자규모(6.9억 달러)가 전년 실적을 상회했다. 토스 외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사 두나무가 2021년 새로운 유니콘 클럽에 합류하고, 다수 핀테크 기업의 IPO가 예정되는 등 송금·결제를 넘어 다양한 핀테크 분야에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핀테크 관련 글로벌 총 투자 활동(VC, PE 및 M&A) ◀



Source: KPMG International

행복한 일터

HAPPY WORKPLACE

Culture+

생존, 정의 그리고 야망 사이

삼정인터뷰

신임 이사, 한 단계 JUMP UP!
그땐 그랬지! 법인과 함께 성장해온 우리들

삼정별그램

가을 나들이 & 캠핑 어디로 갈까?

Smart Play

KPMG 비올리스트!
가을, 클래식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

이동규의 두줄칼럼

피플 퍼스트(People 1st)

心 Care

스트레스 상황의 응급처방
자기 돌봄 기법

Samjong News

‘제4회 회계의 날’,
회계 업계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 8명 표창 수상 外



삼정인이 추천하는 문화 콘텐츠

생존, 정의 그리고 야망 사이



삼정인이 보고, 느끼고, 즐긴, 문화 콘텐츠를 소개하는 <Culture+>. 이번 호에서는 한 사람의 무인도 생존기를 담은 영화와 정의를 추구하는 검사와 경찰의 법정 추리물 드라마를 소개해본다.



무인도에서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

영화 '캐스트 어웨이'

영화 '캐스트 어웨이'는 바쁜 도시의 물류인으로 살아가던 주인공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무인도에 고립된 후 생존의 사투를 벌이다 탈출에 성공해 문명사회로 복귀하는 감동, 성장, 생존탈출 스토리입니다. 어쩌면 이 영화가 요즘 우리들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의 장기적 영향으로 극심한 피로, 우울, 혼란 등 심리적 영향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외부환경적 요인으로 일상생활 속 다양한 즐거움을 통제받아서, 부정적인 심리가 증가된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신다면 동병상련의 감정과 더불어 위로를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란 말이 있듯, 이 영화에서는 멀리서 본 아름다운 휴양지에서의 꿈 같은 자연인의 삶도 개인에게는 생존의 사투로 그려집니다. 현재 나 스스로가 겪고 있는 고난은 누구도 알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기에 모두가 각자의 인생에 안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시고 위드 코로나를 통해 조기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캐스트 어웨이
(Cast Away)'
장르 드라마, 모험
감독 로버트 제메키스
출연 톰 행크스,
헬렌 헌트 등



이태현 Manager (MCS2)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력과 흥미로운 추리물의 끝판왕!

드라마 '비밀의 숲'

제가 추천할 드라마는 '비밀의 숲'입니다! 어머니가 '비밀의 숲'을 시즌 1부터 본 방사수 모드로 임하시길래, 궁금해하던 찰나 시즌 2가 시작되기 전 시즌 1을 몰아보고, 시즌2를 본방으로 시청하게 됐어요. 시즌 1은 몰입도가 높아서 3일 만에 모든 회차를 섭렵했죠. 이 드라마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검사 황시목(조승우)이 정의롭고 따뜻한 형사 한여진(배두나)와 함께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비밀 추리극이에요. 등장인물 하나하나 캐릭터가 뚜렷하고, 추리 내용도 굉장히 개연성 있어서 한번 빠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는 매력 넘치는 드라마예요. 특히, 법정 추리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좋아하실 작품입니다. 전 이 드라마를 '끝판왕!'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작품이라, 정주행하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년에도 시즌3도 방영 예정이니, 방영 전에 보시는 걸 추천해요!

'비밀의 숲'
장르 법정물, 드라마,
스릴러, 범죄
극본 이수연
출연 조승우, 배두나 등



홍지수 Consultant (MCS1)

신임 이사, 한 단계 JUMP UP! 그땐 그랬지! 법인과 함께 성장해온 우리들

이번 <삼정인터뷰>에서는 2021년 New Director(신임 이사) 승진자를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다.
각 Function별 대표 신임 이사를 만나,
입사 후 지금까지 전문가로서 성장해온 이야기와 과거 입사 시절 모습까지 공개한다.



홍지웅 Director
(Deal Advisory4)









김성아 Director
(IGH)





류수석 Director
(Tax3)



전가원 Director
(RCS)

3...2...1... 1...2...3

Chapter1. 과거: 신입 삼정인 시절 #설렘_반 #걱정_반 #할_수_있다!

김성아: 2010년, 입사 경쟁이 유난히 치열했던 시기라 당시 삼정인이 된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행복했어요! 출근 준비를 마치고 거울을 보며 스스로 '할 수 있다'며 주문을 걸었던 제 모습이 떠오르네요.

홍지웅: 저는 '설레는 감정'이 어느새 '걱정'으로 변하더라고요. 법인 내 유능하고 뛰어난 선배, 동기분들을 뵈고 나니, 이

조직에서 '나의 몫'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고민하며 스스로 발전하려 노력했던 순간들이 스쳐 가네요.

류수석: 저 역시도 부모님께서 사주신 정장을 입고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첫 출근했던 날이 떠올라요. 먼저 법인생활을 경험한 친구들과 선배들의 조언을 되새기며, '실수하지 말고 잘해보자!'라고 마음먹었던 기억

도 나네요.

전가원: 저는 GFC에서 입사 인터뷰를 본 후, '와! 크고 멋진 건물에서 근무하게 되다니!' 뿌듯함과 기대감이 컸어요. 하

지만, 그 후 바로 고객사 사이트로 출근하게 되어 조금 아쉬웠던 기억이 나요. 요즘도 대부분 고객사에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라 본사 방문 횟수는 얼마 되지 않네요. 하하.

Chapter2. 현재: 승진 후 나의 모습

#기쁨 #책임감 #노력 #역할과 책임



김성아: 엇그제 입사한 것 같은데, 벌써 이사라니, 실감이 안 나요! 조직과 조직의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선배님들, 부족하지만 저를 믿고 함께 일해준 후배님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승진을 계기로 입사 시 초심을 되돌아보고, 제 열정과 도전정신을 재정비하게 됐어요. 특히 직급이 무거워질수록, 제 행동이 많은 법인의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책임감을 느끼며, 조금 더 신중하고, 진중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전가원: 맞아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이사가 되고 나니 그동안 해온 다양한 프로젝트들도 떠오릅니다. 성장의 기회가 주어지는 법인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산업을 깊이 있게 경험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쌓아온 좋은 경험과 자산들을 동료, 후배 컨설턴트와 나누고 협업해서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 가고 싶어요.

홍지용: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장'으로 불리다 '이사'라는 호칭은 아직 조금 어색하네요. 새로운 책임감과 압박이 있지만, 성장통이라는 것 자체가 더욱 성장하기 위한 '통'이기에 긍정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법인에 재직하면서 CFA 자격증 및 MBA 학위 취득, 그리고 현재 박사과정(Ph.D) 6학기째 재직 중이에요. 내년에는 꼭 박사학위를 받으면 좋겠어요.

류수석: 승진 발표 후, 주변에서 젊은 나이에 벌써 이사가 되었다고 축하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 역시도 웃으며 감사 인사를 건넸지만, 한편으로 앞으로의 역할과 책임이 무겁게 다가오네요. 제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소화해갈지, 깊이 고민해보고 차근차근 실천에 옮겨볼 계획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관심 분야에 좀 더 공부해보고자, 대학원 지원도 고민 중입니다.

Chapter3. 미래: 희망 가득한 미래의 나

#성실히 #즐거는 #새로운_기회 #선한_영향력



전가원: 삼정KPMG에서 지내는 약 10여 년간 첫 제안 프레젠테이션, 첫 PM 등 어느 하나 쉬운 것은 없었지만 많은 기회를 주시고, 곁에서 지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주어진 자리에 걸맞은 좋은 리더와 동료로서, 고객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맡은 일에 성실히 임하는 삼정인이 되겠습니다.

류수석: 앞으로도 함께 일하는 동료들, 후배들과 즐겁게 법 인생살이를 이어 나갔으면 합니다. 법인생활이 힘들고 쉬운 일 하나 없지만 순간순간 동료들, 후배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즐겁게 경험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함께 극복하고 성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앞으로도 순간을 즐길 줄 아는 삼정인이 되고 싶습니다.

김성아: 저는 2021년 11월을 시작으로 2년간 KGSG로 파견 기회를 갖게 됐어요. 감사본부 이사가 되는 시기에, 법인의 핵심 전략인 '신뢰받는 조직'을 위해 'Excellence' 가치를 발휘할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뻐요. 파견 동안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KCw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을 위한 더 크고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어요.

홍지용: 제가 경험한 삼정KPMG의 최고 장점은 '사람'입니다. 업무적으로 뛰어난 실력과 훌륭한인성까지 갖춘 삼정인 분들이 제게 자부심으로 다가옵니다. 저도 제 행동들이 법인 내에서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도록, 제가 해내야 할 몫 그 이상을 해낼 수 있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가을 나들이 & 캠핑 어디로 갈까?

가을이 물들어 놓은 빨강고, 노란 나뭇잎,
그리고 유난히도 높고 푸른 하늘.
아름다운 계절 가을,
삼정인들은 어디에서 가을을 즐기고 있을까?
삼정인이 추천하는 나들이 장소와
캠핑 사이트를 공개한다.



제주 비양도

백패킹 성지를 가고 싶다면!

양예나 S.Manager (B&F3)



조금 멀지만 특별한 캠핑 장소, 비양도를 추천해요! 제주도의 우도 안에 있는 섬안의 섬으로 국내 백패킹의 성지 중 한 곳이지요. 노을을 보며 저녁을 보내고, 별 가득한 하늘을 볼 수 있고, 모닝 파도 소리에 눈을 뜨는 감성 넘치는 곳입니다. 바람이 거세서 화로를 쓰는 음식보다는 치킨처럼 간단한 음식과 맥주로 조용한 저녁을 보내는 것을 추천해요. 그리고 해질녘, 비양도의 전망대에 오르면 멋진 캠핑 풍경에 놀라실 거예요.



인천 선재 오토 캠핑장

갯벌 체험, 해산물 그리고 모히토!

이예슬 S.Senior (Tax1)



선재 오토 캠핑장은 서울에서 2시간 내로 갈 수 있는 인천 선재도에 위치한 캠핑장으로 바닷가에 있어 물놀이와 갯벌 체험이 가능한 곳입니다. 캠핑장 바로

앞에 위치한 갯벌에서 조개 잡기, 해루질 등 체험이 가능해요. 차로 7분 거리에 위치한 '영흥수협수산물직판장'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사 와서 캠핑장에서 먹을 수 있어요. 또, 차로 5분 거리에는 모히토와 바다 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빨다방'도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 솔개 캠핑장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을 만끽

최창현 S.Consultant (SCG)

포천 솔개 캠핑장은 조용한 산골에 있어서 '찐' 캠핑을 원하시는 분들께 딱 맞는 캠핑장이에요. 산중턱 즈음에 위치해,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에서 캠핑다운 캠핑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세척장, 샤워실도 잘 갖춰져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대세, 불멍을 자연에서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고기도 구워 먹고, 불멍도 즐기며 낭만가득한 가을 캠핑하시기 바랄게요!





충남 아산 외암민속마을
옛사람들의 정취를 느끼다
 장화영 Manager (ICE2)



외암민속마을은 마을을 둘러싼 경치가 너무나 좋고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라 옛사람들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요. 아이들과 민속마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기고, 민속마을 인근의 장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해도 좋습니다. 저는 외암마을 앞쪽에 조성된 솔외장터에서 국밥과 파전이 좋더라고요. 식사 후 소화시킬 겸 외암마을의 돌담길을 따라 걸으면 옛 고택들을 돌아볼 수도 있고, 마을 관람이 끝나면 은행나무길 혹은 현충사를 돌아보는 것도 추천해요!



남해 보리암
사계절 언제 와도 좋은 곳!
 이동주 S.Analyst (Deal Advisory1)



남해 보리암은 산 꼭대기 무렵 절벽에 위치한 절로서, 산과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입니다. 서울에서 꽤 먼 남해에 있지만, 휴가를 활용해 사계절 언제 다녀와도 좋을 법한 곳입니다. 비경을 즐길 수 있음과 동시에, 가벼운 산책/산행도 즐길 수 있어요. 이와 함께 절경을 감상하며 먹을 수 있는 컵라면과 사진 포인트에서의 인생샷은 필수입니다.



서울 난지캠핑장
서울에서 즐기는 캠핑!
 김수한 Senior (IA)



올해 4월에 리뉴얼 후 재오픈한 난지캠핑장을 추천해요. 캠핑장, 또는 바비큐장을 예약할 수 있어 가을 나들이 또는 캠핑 모두 가능합니다. 얼마 전 리뉴얼을 마쳐서 시설도 깨끗하고, 캠핑장 내에 매점도 있어서 캠핑 경험이나 용품이 많지 않은 캠린이도 즐기기에 좋은 곳입니다. 무엇보다, 탁 트인 한강 뷰를 만끽하며 쉴 수 있고, 캠핑장 내부가 넓고 쾌적해서 아이들이 뛰어놀기에도 좋아요. 구역 내에 캠프파이어 존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숙박하는 경우 불명도 가능합니다.



여기도 좋아요!

삼정인이 추천한 가을 나들이 & 캠핑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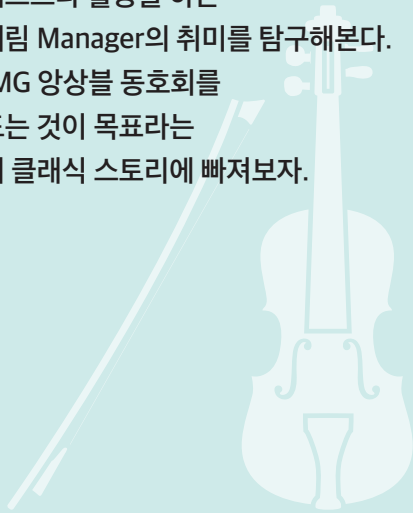
나들이 장소: 파주 마장호수 출렁다리, 가평 자라섬, 완주 아원고택, 상암동 하늘공원, 과천 서울대공원, 양재천, 축령산

캠핑 사이트: 충주호 대호레저 캠핑장, 국토정중앙천문대 캠핑장, 백마강 캠핑장, 영월 별마로빌리지 캠핑장, 양평 카라반파파 글램핑, 포천 글램핑장, 태안 학암포 국립공원 캠핑장, 포천 수목원프로방스, 치악신림오토캠핑장, 파주 레이크스토어, 계방산 오토 캠핑장

*추천해주신 모든 삼정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Deal Advisory4 장세림 Manager KPMG 비올리스트! 가을, 클래식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

가을, 그 어느 때보다
클래식이 어울리는 계절이다.
이번 호에서는 비올라를 켜고,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는
장세림 Manager의 취미를 탐구해본다.
KPMG 앙상블 동호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그의 클래식 스토리에 빠져보자.



| 운명처럼 만난 밀크 초콜릿 같은 비올라!

80~90년대 생이라면, 어릴 때 한 번은 부모님 손에 이끌려 태권도며, 피아노 학원에 다닌 적이 있을 것이다. 장세림 Manager 역시, 어릴 때 태권도와 피아노 학원에 다녔는데 유독 피아노에 흥미를 갖고 클래식을 애정하게 됐다. “어릴 때 피아노를 배우면서, 클래식의 매력에 조금씩 빠져들게 된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예고 피아노과에 가고 싶다는 꿈도 있었는데, 결국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됐지요. 그러다 대학교 입학 후 학창 시절 좋아하던 클래식을 직접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 오케스트라 동호회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장세림 Manager가 어릴 때 배워온 피아노는 주로 솔로 혹은 반주 악기로 활용되기에 오케스트라 동호회에 여러 번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오케스트라를 꼭 하고 싶다는 의지로,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조건 하에 오케스트라 일원이 될 수 있었다. “비올라는 바이올린, 첼로보다 낯설게 느껴지는 현악기일 텐데요. 고음인 바이올린, 저음인 첼로 사이의 중간 음역대를 담당하는 것이 비올라예요! 쉽게 초콜릿에 비유하자면, 바이올린은 씹쓸하지만 강렬한 맛의 다크 초콜릿, 첼로는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화이트 초콜릿, 그리고 비올라는 다크와 화이트 중간에 매력을 다 갖춘 부드러운 밀크 초콜릿이라 생각해요. 들으면 들을수록 수수하면서 부드러운 소리가 매력인 악기죠!”

| 오케스트라로 배운 ‘배려’와 ‘소통’으로!

오케스트라는 조화로운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서 특정 악기 소리만 될 경우, 불협화음이라고 한다. 반면, 여러 악기가 조화로운 소리를 내면 아름다운 하모니가 완성된다. 이처럼 오케스트라는 서로 자신의 악기 소리를 강조하기 보다, 다른 사람들이 연주하는 악기 소리를 들으며 소통하고 배려하는 덕목이 필요하다. 그래서인지, 장세림 Manager는 절제된 미학 속에서 혼자가 아닌 단체로 하모니를 만들어 가는 부분에서 인간 사회의 축소판과 같은 흥미로운 현상들을 느낄 수 있어 오케스트라 활동이 매력적이라고 말한다.

또한, 장 Manager는 오케스트라에서 배운 '배려'와 '소통'의 가치가 법인 생활에서도 중요한 가치로 연결된다고 한다. "Manager 직급으로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제가 바이올린 소리와 첼로 소리 중간에 조화를 맞춰 전체 소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비올라 연주자의 역할을 하듯, PM이신 팀장님과 팀원들 중간에서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꾸준히 소통하려 해요. 특히, 다양한 악기들이 하나로 하모니를 만들 듯 다양한 팀원들과 협업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역시 필요한 가치입니다."

KPMG 앙상블로 함께 즐거운 법인 생활을!

장세림 Manager는 큰 목표가 하나 있다. 바로 'KPMG 앙상블' 동호회를 개설하는 것. 이는 삼정인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쌓으며, 함께 즐거운 법인 생활을 만들어 가고 싶기 때문이란다. "지난 회사에서 앙상블을 활동하며 좋은 추억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일터를 추구하는 삼정KPMG에서도 'KPMG 앙상블' 동호회를 개설해, 삼정인들과 함께 즐거운 법인 생



활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사내 동호회 활동으로 법인 생활이 즐거워진다면, 그만큼 애사심도 생기고, 일에 대한 활력도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법인에서도 긍정적이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많아지면, 함께 성장해갈 수 있는 시너지 효과도 생길 거라 기대해요!"

'KPMG 앙상블' 동호회에 진심인 장세림 Manager는 동호회 개설을 위해 다양한 삼정인들의 모집을 희망하고 있다. 악기 초보자도 환영한다며, 가벼운 마음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달라며 동호회 개설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리고 동호회가 개설된다면, 로비 음악회, 연주회 이벤트를 기획하며, 사내문화 증진에도 기여하고 싶단다. 이를 통해 일도 잘하고 취미도 잘하는 능력 넘치는 삼정인으로 거듭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머지 않아, 장세림 Manager의 바람이 이뤄지길 응원하며, 삼정KPMG에서도 아름다운 하모니가 들려오기를 기대해본다.



클래식, 우리 일상에서 느껴요!

클래식,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지만,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어요. 최근 이슈인 '오징어 게임'에서 참가자들이 처음 눈을 뜰 때 들려오는 멜로디가 하이든 트럼펫 협주곡 3악장의 멜로디랍니다. '장학퀴즈 음악'이라 설명하면 '아, 그 음악'하고 아실 만큼 귀에 익은 멜로디지요. 조금 더 쉽게 클래식을 즐길 수 있도록 영화, 드라마에 나온 음악을 추천 드립니다.

영화	'마이러리리티포트'	바흐, 칸타타 147번 중 "예수는 우리의 소망과 기쁨"
	'올드보이'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중 겨울 1악장
	'오션스 일레븐'	드뷔시, "달빛"
드라마	'스카이캐슬'	슈베르트 가곡 "마왕"
	'펜트하우스'	모짜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의 아리아"
	'오징어 게임'	하이든, 트럼펫 협주곡 3악장

직원은 최초의 시장이다.
만족한 직원이 만족한 고객을 만든다.

피플 퍼스트 (People 1st)

세계적인 기업의 핵심 성공 요인은 의외로 단순하다. 그것은 바로 ‘인간존중’이라는 최고의 경영 원리에 기인한다. 여기서 그 출발점은 ‘피플 퍼스트(People 1st)’, 즉 직원존중에 있다. 세계 유수의 서비스기업들은 예외 없이 이 원칙을 경영의 제1조 1항으로 삼고 있다.

기업 경쟁력의 바로미터는 결국 조직의 엔진인 직원들에 달려 있다. 일단 직원들이 의구심을 갖거나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자사 제품과 서비스는 무조건 실패한다고 보면 된다. “종업원은 최초의 시장이다(People is the first market)”란 생생한 마케팅 격언이 탄생하게 된 이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정한 고객만족(CS)의 첫걸음은 직원존중에서 출발해야 한다. 한마디로 “만족한 직원이 만족한 고객을 만든다”는 것이다. 나아가 진정한 성과 창출을 위해선 ‘직원->고객->주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최고의 선순환 원리다.

정작 문제는 CS(고객만족) 이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맹목적인 추종에 있다. 특히 진상고객과의 분쟁 발생 시에도 직원들은 월급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조직의 보호는커녕 일방적인 굴종을 강요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한마디로 고객은 왕이고 직원은 봉이 되어버린 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직원만족도(ESI)는 형편없는 직장이 고객만족 대상을 수상하는 코미디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전문 서비스경영 이론은 맹목적인 고객만족은 넌센스에 불과하며, 경우에 따라선 고객 거절도 고려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자신의 타깃 고객에게 유니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물류 부문의 세계적 거인 페덱스(Fedex)는 소유한 항공기만 700여 대에 이르며 하루 400만 개 이상의 소포를 처리하는 거대 기업이다. 그러나 화물 비행기에 붙어 있는 수많은 애칭이 바로 직원들의 아이들 이름인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자기 자식의 이름이 붙은 비행기를 모는 직원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라.

웨그먼 슈퍼마켓은 한술 더 떠서 ‘직원 먼저, 고객은 다음(Employees first, Customers second)’이라는 우리로선 입이 떡 벌어질 문구를 내걸고 있다. 애완견을 데리고 출근하는 구글이나 식사 시간에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는 SAS 같은 회사는 더 말할 여지도 없다.

결국 모든 고객이 왕이 아니듯이 직원 또한 종이 아니다. 고객은 결코 갑이 아니며, 직원 또한 을이 아니다. 서비스란 원래 일방적 거래가 아니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자 쌍방 커뮤니케이션 게임이다. 고객은 웃고 있는데 정작 우리 직원은 뒤에서 울고 있는 건 아닌지 모든 경영자의 필수 점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저자 소개



이동규 교수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이동규 교수는 국내 거의 모든 종류의 조직을 진단·평가해온 국내 정상급 경영평가 전문가이며, 스타급 강사로도 유명하다. 특히 신작 《생각의 차이가 일류를 만든다》(21세기북스, 9쇄 돌파)는 각종 언론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교수의 《두줄칼럼》은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조직문화, 혁신 등 삶과 일에 대한 인사이트, 아이디어 및 최신 트렌드 등을 불과 ‘두 줄’로 풀어낸 국내 최초의 초미니칼럼(부제: Think Audition)이다. 내용은 주로 인문과 경영의 융복합 구성이며, 생각 근육을 키우고 마음의 울림을 느끼게 하는 독창적인 언어 플랫폼이다.

스트레스 상황의 응급처방 자기 돌봄 기법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 했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어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이왕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면 잘 다루고, 해소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번 호에서는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를 통해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 빠르게 해소하는 방법을 들어본다.

글.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마음이 복잡할 때,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멘탈을 다잡기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겠다고 느낄 때가 있다.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고 힘든 '그 상태'를 한 번 느끼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우리의 뇌는 힘들었던 몸과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유사한 상황이 되면 '그 상태'로 빠르게 도달하게끔 한다. '그 상태'로 가는 고속도로를 놓은 것이다. 불같이 한 번 화를 내고 나서는 다시 또 화를 내기가 쉬운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듯 마음이 혼란스러워 다잡기 어려운 상태가 되면 사람들은 당혹감을 느끼기 쉽고 '이럴 때 복용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약 같은 것 없나'하는 생각도 한다. 극에 달한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진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응급대처법 혹은 자기 돌봄 (self-care) 방법을 소개해본다.

스트레스 유발 장소에서 벗어나기

현재 스트레스를 느끼는 장소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우선되면 좋다. 사무실에서 극심한 스트레스 순간을 느꼈다면 잠시 밖에 나가있거나, 휴게실 등 어디든 좋으니 자리를 잠깐 벗어나자. 심리학 용어로는 '타임아웃 (time-out)'이라고 하는데 스트레스를 유발한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사무실에 계속 앉아서 '도저히 못 참겠어'라고 생각하며 그 괴로움을 어떻게 버텨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엉덩이를 떼자. 집 안에서 힘들다면 산책이라도 하고 오자. 다만 불쑥 나가버리기보다는 "잠깐 진정 좀 하고 올게"라고 가족 구성원에게 말해주는 것이 좋다. 우리의 목적은 '내가 힘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고의 위안, 크게 한숨 내쉬고 들이마시기

손으로 어깨나 팔뚝을 부드럽게 쓰다듬거나 두드려보자. 널리 알려진 '나비포옹법'도 좋다. '나비포옹법'은 양팔을 X자로 교차해 반대쪽 어깨에 손을 올린다. 눈을 감고 호흡을 깊게 하며 양 손바닥으로 어깨를 번갈아 두드리는데, 마치 나비가 날갯짓하는 것처럼 10번 정도 다독인다. 손의 온기, 힘을 느끼며 숫자를 세며 다독이면 더 효과가 좋다. 그리고 크게 한숨을 한번 쉬자.

'복 날아가니 한숨 쉬지 말라'는 말도 있고, 실제 오슬로 대학의 심리학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한숨은 좌절감으로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한숨은 슬픔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 이처럼 한숨이 가지는 의미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소 체념적인 의미가 강한 것에 반해, 과학이 증명하는 실제 한숨의 역할은 매우 생산적이다. 크게 숨을 쉬면 산소가 뇌 구석구석에 공급되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피로의 원인인 활성 산소를 제거할 수 있다. 몸과 마음의 긴장과 피로를 덜 수 있는 것이다. 숨을 길게 내 뱀은 다음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것도 잊지 말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진정시킬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그라운드링

깊은 호흡으로 이완한 후에는 뭘 하면 좋을까? 현재의 스트레스, 고통으로부터 주의를 돌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몸의 자세에 주의를 기울여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법을 '그라운드링(grounding)' 기법이라고 하는데, 여러 그라운드링 중 한정된 공간에서도 해볼 수 있는 신체적 그라운드링을 소개하겠다.

몸의 힘과 중심을 의식적으로 아래로 낮춰보자.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고통스러울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의 힘이 머리 쪽으로 향한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얼굴이 상기되거나 두통, 목과 어깨 근육이 경직되곤 한다. 이렇게 스트레스에 압도되는 느낌이 들면 몸의 중심을 아래로 낮춰보자. 가벼운 스쿼트 자세를 생각해보면 쉽다(스쿼트를 하면서 심란함을 느꼈던 경험은 거의 없음을 떠올려보자). 혹은 배와 엉덩이에 힘을 주고 발바닥으로 바닥을 굳게 디디거나, 무거운 생수 페트병 여러 개 들고 무게를 느껴보기, 앉아 있다면 발로 바닥을 힘껏 밀어보자.

'별것 아니네, 해 봐도 쓸모없을 걸'처럼 느껴지는 대처법 일지라도, 일단 생각을 내려두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실제로 해보면 진정효과가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신체적으로 이완이 되는 방법을 알아두고 있던 자체가 든든한 힘이 되어 자기를 돌볼 수 있게 된다.



Profile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기업과 사람의 정신건강을 위해 마음으로 다가가는 기업정신건강 힐링멘토.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공부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그 직후에는 심리진단, 평가 영역에서 경력을 쌓았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업무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로 기업 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발로 뛰어왔다. 다수 대기업, 공공기관, 외국계 기업에서 상담, 위기 개입, 교육을 진행했고, 근로자를 위한 정신건강 관련 글을 썼다. 현재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전임상담사로, 'CIM Care Program'에 참여해 삼성KPMG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 치유를 위한 상담을 진행 중이다.

Samjong News

‘제4회 회계의 날’, 회계 업계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 8명 표창 수상



11월 1일 서울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제4회 회계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삼정KPMG는 공인회계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회계 업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임직원 8명이 표창을 받았다.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상 신장훈 부대표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남상민 전무 ▲국세청장상 조상현 상무 ▲금융감독원장상 김민규 전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상 박관중 상무, 양진혁 상무, 마진영 S.Manager, 이승만 상무가 표창을 받으며 법인의 위상을 높였다.

KPMG, 환경·사회·지배구조 문제 해결 위한 ESG 전략 발표

KPMG가 향후 3년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문제 해결 위한 솔루션 개발에 1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KPMG ESG 전략은 지난 1월 발표한 ‘임팩트 플랜(Our Impact Plan)’의 일환으로, ESG 인력 양성, 데이터 활용, 신기술 개발 가속화, 파트너십 등을 통한 적극적인 행동 추진에 나선다. KPMG는 “ESG를 조직 및 클라이언트 솔루션에 통합하여 측정 가능한 변화를 지원하는 것이 이번 투자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기업의 탈탄소화 및 탄소중립(Net Zero) 약속 이행을 지원하며, 유럽, 아시아 태평양 및 미주지역에 3개의 ‘ESG 허브’를 설립한다. 기후 변화에 따른 기회와 위험을 식별하도록 하는 디지털 톨인 ‘Climate IQ’를 포함하여 기술 및 인력 확대에도 투자를 단행하며, 자체 감사 워크플로우 기술도 개발해 엄격한 ESG 인증을 제공한다. KPMG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교육을 통해 긍정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중해 동부,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의 ESG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KPMG 이머징마켓 엑셀레이터’도 시행한다.

KPMG 공식 후원 여성 단체 WCD, ‘창립 5주년 포럼’ 개최



KPMG가 공식 후원하는 세계여성이사협회(WCD)가 10월 27일 창립 5주년을 맞아 ‘여성의 경영참여 확대: 다양성과 포용성을 아우르는 조직문화’를 주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여성 이사 의무화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계기로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과제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삼정KPMG는 WCD 공식 후원사로서 여성 리더들의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고 있다.

AMCHAM 웨비나 연사 참여, 변화될 국제조세 대응 방안 모색



삼성KPMG와 KPMG 전문가들이 지난 10월 12일, 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하는 ‘Taxation Committee Webinar’에 연사로 참여해 변화될 국제조세에 대한 준비 방안을 모색했다. 삼성KPMG는 AMCHAM의 공식 멤버로서, 본 웨비나에 연사로 초청받았다. 웨비나 첫 세션에는 삼성KPMG 서유진 상무가 2021년 국내 세법개정안 중 일부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어 KPMG ASPAC의 Tax 대표와 Tax Policy 리더가 최근 합의된 BEPS 2.0, 필라1·2의 주요 내용과 2023 시행 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끝으로 KPMG US의 Tax 대표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 하에 예정된 미국 세제 개혁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Contact: Tax3 서유진 상무 yujinsuh@kr.kpmg.com

‘삼정포럼’, ‘알.쓸.산.지’... 임직원 대상 강연 진행

삼성KPMG는 ‘삼정포럼’, ‘알.쓸.산.지(알면 쓸데 있는 산업 지식)’ 등 임직원을 위한 강연을 진행했다. 지난 10월 14일, VC(Virtual Classroom)로 진행된 ‘알.쓸.산.지’에서는 ‘현실을 초월한 세계,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를 주제로 경제연구원과 함께 다가올 메타버스 시대를 전망해봤다. 11월 3일에 열린 ‘삼정포럼’에서는 숙명여대 디자인학부 김기영 교수가 ‘노브랜드는 왜 브랜드가 되었나-마음상륙작전의 성공비결’을 주제로, 삼성KPMG만의 차별화와 핵심 경쟁력을 위한 브랜드 핵심 DNA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1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 서베이 리포트’ 발간



삼성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리더: 신장훈 부대표)은 10월 21일, ‘2021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 서베이 리포트’를 발간했다. 본 리포트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평가 조직 관련 법규, 경영진 운영실태 점검·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위원회) 감독을 위한 조직 등을 분석했다. 한편, 삼성KPMG는 2017년 회계제도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내부통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계에서 선도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을 설립하고, 2019년 이래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에 대한 서베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Contact: ACI 강환우 이사 hwanwookang@kr.kpmg.com

NK BIZ FORUM

NK비즈니스포럼 제6기 모집

‘NK비즈니스포럼’에 초대합니다!

‘NK비즈니스포럼’은 ‘대북 비즈니스 어드바이저’로서 기업들의 남북경협 및 대북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삼성KPMG와 중앙일보가 함께 진행하는 남북경협 최고경영자과정입니다.

삼성KPMG·중앙일보가 북한·경제 전문가는 물론 대북사업을 경험한 기업인, 북한 고위층 출신 인사를 초청하여 북한의 현실 정책과 시장, 비즈니스 경험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다가올 평화경제 시대, NK비즈니스포럼과 함께 준비하십시오.

기간

2021년 11월 하순 개강(12주 과정)
매주 목요일 오후 7~10시

장소

롯데호텔서울 or 더 플라자호텔

선발 대상

기업 최고경영자 및 임원, 주요 기관·단체장
대북 진출, 남북경협 등 북한·통일 이슈에 관심 있는 분



• NK비즈니스포럼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됩니다.

문의

nkbizforum.com

	삼성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전화	02-2112-2743
이메일	seungpyohong@kr.kpmg.com



‘Channel’ 구독 정보 변경/ 신규 구독/ 구독 취소 안내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는 분, 또는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변경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E-mail: kr-fmchannel@kr.kpmg.com Tel : 02-2112-7567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